

이준원·손연경·
동인·서인 선교사
선교편지

캄보디아에서 보내는 희망의 메세지...

Vol.04 2021.12.29

쭈쓰더이 떼앙어 크니어! ស្នើសុំទាំងអស់គ្នា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원 선교사입니다.

성도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어느덧 2021년이 몇 일 남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에 힘입어 올해 초 3월에 파송을 받아 여러가지 험산준령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셔서 부족한 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 참 감사할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와 저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는 우기가 끝난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2월~1월이 날씨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그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그리고 보면 늘 뜨거운 날씨인 이곳에서 어떻게 지낼까 걱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도 피할길을 주시고 살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마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하늘위에서 내려오네..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469>

언어훈련에 박차를 가하다...

프놈펜 왕립대학 크메르어 훈련 코스 총4단계 중에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3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머지않아 크메르어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 더욱 힘이 납니다. 또한 KLC언어훈련에서는 신문번역(기초2)에 들어가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을 접하고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7>



교회에서 나눠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쌀,라면,마늘,간장 등..) -이삭공동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동네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줄을 서 계신다..-구세군 프놈펜 교회-

캄보디아에서 첫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보내다...

캄보디아에서 맞이하는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캄퐁치낭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를 소개받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서 정성스럽게 올린 곡식과 과일들을 예배가 마친 뒤에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동네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공연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발표하는 아이들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지금 이 시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땅 캄보디아 구석구석에 널리 전해지기를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18)



추수감사절에 올린 직접 추수한 열매들
(캄퐁치낭 현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신진균 선교사님-구세군 교회)



크리스마스 전날 공연하는 아이들
(김기대 선교사님-이삭공동체)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다...

프놈펜 교회를 담임하시는 선교사님의 권유로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들의 신앙과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서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허물없는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좋은 경험도 되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10)



구세군 교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다 (꺄뻏 휴양지)



청년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뒷정리 하는 캄보디아 청년들

기도...

캄보디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있는 왓(절)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들입니다. 이땅에서의 번영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기도는...어떠한가? 저들이 우상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나의 기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두손모아 기도하는 아이



동생을 안고 기도하는 아이
-무엇을 위해 저리도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두 손 맞잡아 드리는 간절함 보다... 우상 앞에서 드러지는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땅에 것과 이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도가 하늘높이 올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로...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기도가 타인을 위한 진정한 기도로 옮겨지기를 오늘도 길어요..진리요..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올려 드립니다.



기도제목.....

1. 위드코로나 상황에 변이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2. 언어훈련 왕립대학교(IFL) 3단계, 외부어학원(KLC) 신문번역 수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캄보디아에서 섬겨나갈 하나님께서 예비 해 두신 지역과 땅을 순전히 만날 수 있도록.
4. 한국에 남은 가족들이 3월에 들어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5.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다가도 다시 자신들이 어릴적부터 따랐던 우상앞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뱃속깊은 우상의 뿌리들이 뽑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